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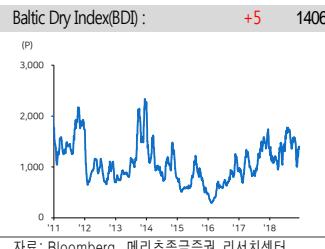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731.3	16.5	137,500	-1.8	2.2	5.4	43.3	95.8	45.9	0.7	0.7	0.7	1.4
현대중공업입자주	6,294.8	20.6	386,500	-0.6	2.7	-0.5	1.4	52	43	0.7	0.6	14.1	14.7
현대알렉트릭	508.9	4.6	25,000	-4.0	13.0	-21.5	-56.1	24	21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894.4	6.6	45,400	-2.7	10.5	-20.7	-46.3	29	21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103.0	18.0	8,100	-0.6	6.6	1.8	25.2	51.1	25.3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998.8	11.3	37,300	-0.3	0.3	14.8	168.3	104	142	1.1	1.0	12.1	6.2
현대미포조선	2,556.3	10.1	64,000	-2.4	20.2	28.4	62.6	13.8	10.0	0.5	0.5	3.6	4.8
한진중공업	204.7	5.9	1,930	-5.2	7.2	-26.9	-41.7	38.8	9.7	0.3	0.3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501.3	21.3	92,100	-5.1	2.4	-17.8	69.3	163	15.8	22	20	14.6	13.3
두산밥캣	3,258.1	28.0	32,500	-1.2	-12.2	-11.3	-8.0	11.9	11.2	0.9	0.9	7.4	7.6
현대로템	2,299.3	2.5	27,050	-4.9	15.8	-14.4	44.3	34.9	23.8	1.6	1.5	4.5	6.3
하이록코리아	257.3	47.5	18,900	3.0	-3.1	-18.9	-16.0	8.6	7.8	0.7	0.7	8.8	9.0
성광밴드	348.9	15.3	12,200	-1.2	7.5	-4.7	22.2	1,078.5	43.7	0.8	0.8	0.1	1.8
태광	356.4	12.2	13,450	1.5	15.0	-7.6	11.6	80.3	39.2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347.2	13.3	11,500	-0.4	10.0	-22.3	-25.1	-47.5	10.7	0.4	0.4	0.2	4.1
두산인프라코어	1,690.2	20.3	8,120	0.0	-2.6	-12.2	-6.6	5.6	52	0.9	0.8	17.1	15.8
HSD엔진	190.8	4.7	5,790	-1.9	32.5	31.1	125.4	-152	-13.9	0.8	0.9	4.7	-6.0
한국항공우주산업	3,070.5	12.5	31,500	-1.4	1.8	-30.2	-33.6	41.3	23.0	2.8	2.5	6.7	11.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52.3	14.5	31,750	-0.2	-2.9	17.8	-10.7	72.0	21.9	0.8	0.7	1.1	3.4
LIG넥스원	734.8	9.6	33,400	-2.8	-5.5	-5.6	-44.1	71.0	17.3	1.5	1.4	2.5	23.0
태웅	210.1	4.8	10,500	-0.5	-4.1	-27.6	-45.7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32.6	5.5	8,620	-0.3	3.7	9.8	70.7	-21.7	34.3	3.2	3.1	-13.5	9.2
한국카본	342.5	14.7	7,790	-0.3	6.3	13.7	45.3	79.3	21.7	1.1	1.1	1.6	4.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Shipping temperature remains 'a little chilly', says Clarksons**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올해 평균운임은 약 11,915달러/일로 2017년 대비 11% 상승했다고 알려짐. 이는 금융위기 이후 평균운임 수준인 11,826달러/일과 비슷함. 별크선과 컨테이너선 업황 개선으로 운임이 증가했으나, 올해 신조선 투자는 약 590억달러로 크게 개선되지 않음. (TradeWinds)

Thenamaris pockets vast profit on bulker asset play

그리스 선주 Thenamaris는 2016년 저점에서 매입한 Kamsarmax 별크선 1척을 최근 매각하며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2012년에 건조된 선박으로, 중국 구매자에게 약 2천만달러에 매각함. 올해는 Thenamaris가 별크선에서 탱кер로 관심을 돌렸다고 알려짐. (TradeWinds)

BW LPG lines up to be the first with an LPG-fuelled vessel

BW LPG는 선대 VLGC 4척에 LPG를 선박 추진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겠다고 발표함. 엔진개조를 위해 엔진 제조업체 MAN과 협력하고 있음. 개조 작업은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2020년 1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업계에서 최초로 LPG 추진엔진을 장착할 예정임. (TradeWinds)

Scrubber retrofits could boost boxship supply equation

컨테이너선 리서치기관 Drewry는 스크루버 장착이 컨테이너선 수급 밸런스를 개선시켜 예상치 못한 업황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함. Alphaliner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약 300척이 스크루버를 장착할 예정으로, 2019년 일시적 공급제한이 예상됨. 동시에 효율이 낮은 노후선 중심 폐선을 전망함. (TradeWinds)

Mexican president unveils E&P plans

새롭게 선출된 멕시코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은 현재 Pemex의 원유생산량 186만배럴/일에서 2024년 말까지 262.4만배럴/일까지 확대할 계획임. 생산량 확대의 두 축은 1) Offshore 생산인프라와 2) 대규모 시추계획으로 알려짐. 동시에 기존 유전과 근해에서 생산량 확대를 계획함. (Upstream)

두산중공업, 조기퇴직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

두산중공업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조기퇴직 적용 나이를 기존 만 56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알려짐. 두산중공업은 올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음. 내년 상반기에는 과장급 이상 직원 2,400명을 대상으로 유급 순환휴직을 실시할 계획임. (뉴시스)